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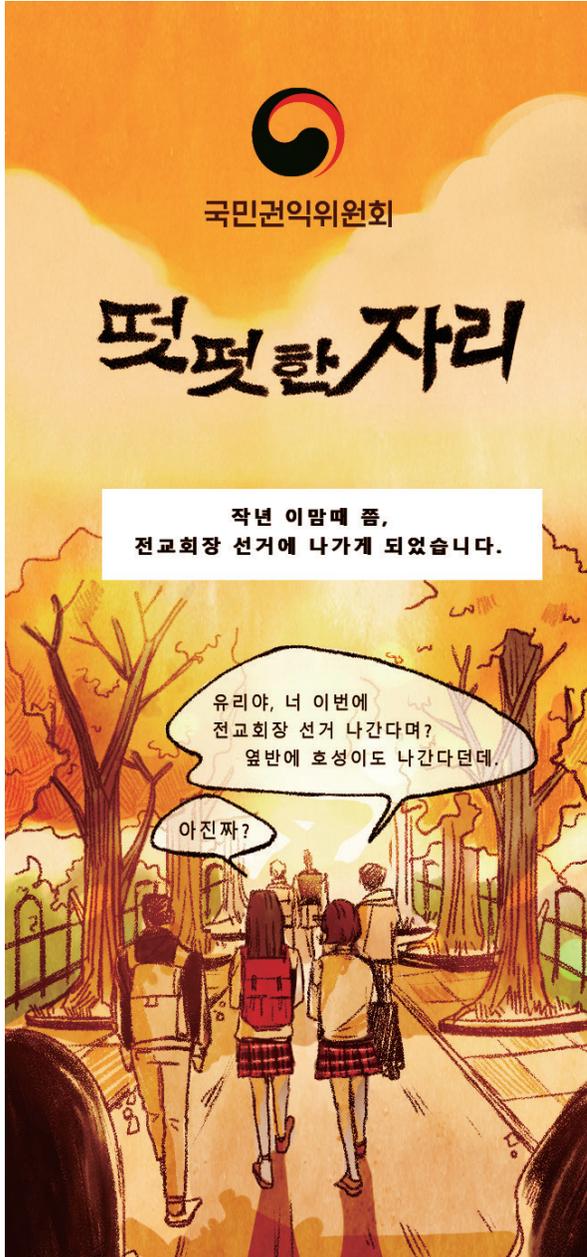
무수상



땃땃한 자리

윤지희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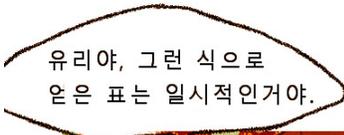
너도 그 정도는 해야 경쟁이 되지 않겠어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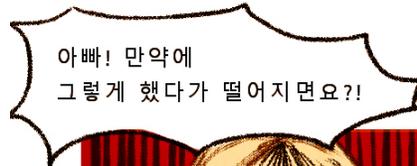
친구의 말을 듣고, 그날 당장 아버지께 들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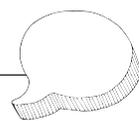
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한결 같으셨습니다.



저는 어린마음에 아버지께 화를 내버렸습니다.



아버지와 싸우고 잠이 든 날, 머리맡엔 아버지가 손수 쓰신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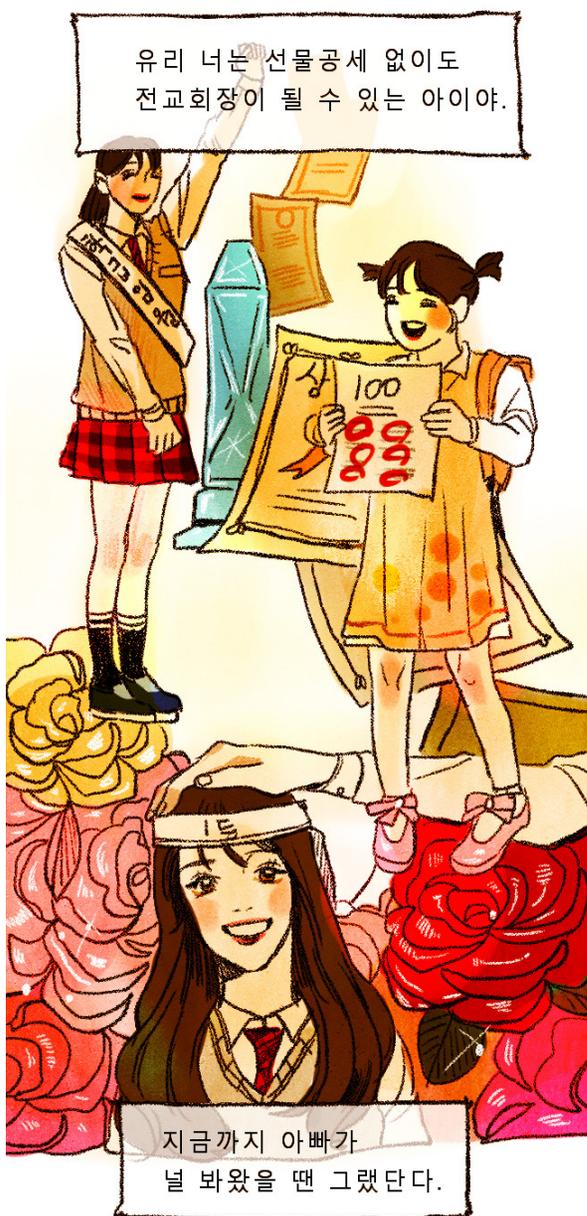


아빠는 딸 유리가  
자랑스러운 딸이  
되었으면 좋겠다.

문득, 아버지께 버럭 화를  
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 졌습니다.



저는 아무런 선물공세 없이  
선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.



유리 너는 선물공세 없이도  
전교회장이 될 수 있는 아이야.

지금까지 아빠가  
널 봐왔을 땐 그랬단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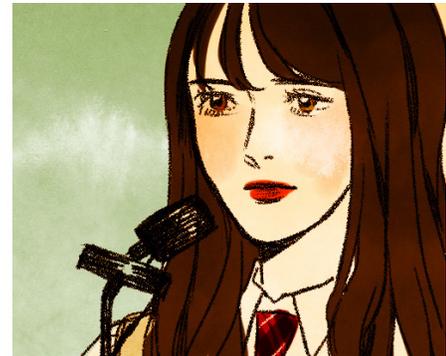


2학년 5반  
이호성입니다.

저를 회장으로  
뽑아주신다면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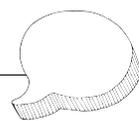


전교생에게 햄버거를 돌리겠습니다.  
이상입니다.



하지만 공짜 햄버거는 일회성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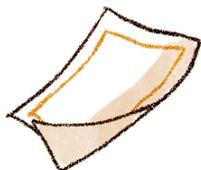




그런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 
저는 전교회장의 자리에  
오를 수 있었습니다.



꼭 뽑아주세요!



만약 제가 다른 학생들처럼  
선물공세로 이 자리에 올랐다면  
뻣뻣하지 못했을 겁니다.



청렴은 돈으로 살 수  
있는 것이 아닙니다.

청렴은 돈으로 살 수  
있는 것이 아닙니다.



돈보다 더한 가치가 있음을  
알려주신 아버지가 너무도 감사합니다.



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.